



유도 남자 60kg급 이하림, 日 꺾고 우승 유도 남자 60kg급 이하림(한국마사회)이 국제유도연맹(IF) 마스터스 대회에서 일본 선수를 꺾고 우승했다. 이하림은 20일(한국시간)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열린 IF 마스터스 대회 남자 60kg이하급 결승전에서 일본의 나가야마 류주를 상대로 안뒤축걸기 절반승을 거둬 금메달을 땀다. /뉴시스

전남, 미드필더 이후권과 재계약 체결

이후권, 2023시즌 전남서 100경기 출전 목표

재도약을 준비하는 전남드래곤즈가 베테랑 미드필더 이후권과 재계약을 체결했다.

이후권은 2019시즌 여름에 전남으로 입단하면서 4시즌을 소화했다. 전남 소속으로 90경기 출전 6득점 4도움을 기록하고 있는 이후권은 2023시즌 전남에서 100경기 출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만약 이후권이 전남 소속으로 100경기 출전을 달성하면 35번째 세자리수 경기출전이라는 명예를 얻을 수 있다.

이후권(1990.10.30 / MF / 180cm 75kg)은 대성고, Kickers Offenbach(키커스 오펜바흐), 광운대를 거쳐 부천, 상주상무, 성남, 포항 그리고 전남에서 활약한 베테랑으로 K리그 통산 206경기 출전 10득점 11도움을 기록 중이다.

K리그 10년차인 이후권은 노련한 경기운영으로 전성기다운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그라운드 안팎에서 후배선수들을 이끌 수 있는 리더십의 소유자다.

왕성한 활동량과 상대 길목을 차단하는 미드필더 이후권은 측면 수비수로도 활동할 수 있으며 득점도 기대하고 있다.



이후권은 "22시즌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었다. 다시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할 것"이라며 "전남 팬분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고 감사한 마음이 크다. 23시즌 잘 준비해서 팬분들에게 기쁨을 드리고 우리가 목표하고 있는 것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광양=조준익 기자

AG 기간 중단 없다...2023 변수 예고

내년 9월 항저우 아시안게임 기간 중단 없이 진행
주요 선수 이탈 공백대처에 순위 싸움 영향 가능성



지난해 8월 1일 요코하마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0 도쿄올림픽 야구 '도미니카공화국과 대한민국의 경기, 9회말 1사 2루에서 동점 안타를 만들어낸 이정후가 2루에서 기뻐하고 있다.

2023시즌 KBO리그는 한 가지 변수를 품고 출발한다. 내년 9월 말로 연기된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때문이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20일 내년 시즌 일정을 공개하면서 아시안게임 기간 내 KBO리그 중단은 없다고 발표했다.

지난 9월 열릴 예정이던 아시안게임이 코로나19 여파로 1년 연기됐는데, 기존에 세워둔 '리그 중단은 없다'는 원칙이 그대로 적용됐다.

다만 선수 선발 원칙에는 변화를 줄 가능성이 크다.

KBO는 당초 아시안게임 대표팀을 만 24세 이하 선수 또는 프로 3년 이하 선수로 구성하기로 했다.

그러나 불가피한 이유로 대회가 연기된 만큼 선수 나이 제한 방침을 1살 올리는 방향으로 나아가가 진행되고 있다.

야구계에 따르면 출전 연령 제한을 만 25세로 상향하는 새 선발 방침 도입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1998년생은 와일드카드 쿼터에 포함되지 않는다. 키움 히어로즈 이정후, 김재중, LG 트윈스 고

우석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팀당 최대 3명 차출과 와일드카드 3명 선발은 그대로 이어지는 분위기다.

구단 입장에서 시즌이 한창인 가

운데 주요 선수가 빠져나가게 되는 셈이다. 대표팀 후보로는 일찌감치 이정후, 고우석, KT 위즈 소형준, 삼성 라이온즈 원태인, 한화 이글스 정은원 등이 꾸준히 언급돼 왔다.

/뉴시스

고우석·정우영·이의리
오늘 라이브 방송 팬미팅

고우석·정우영(이상 LG 트윈스)·이의리(KIA 타이거즈)가 라이브 방송으로 팬들을 만난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비시즌 기간 동안 야구팬들과 선수들이 소통할 수 있도록 'KBO 팬미팅 IN 솔라 라이브' 방송을 22일 오후 5시에 '신한 솔' 모바일 앱에서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라이브 방송에는 고우석, 정우영, 이의리가 참여한다. 올 시즌 비하인드 스토리와 더불어 팬들과의 실시간 Q&A를 통해 야구팬들이 평소 선수들에게 궁금했던 이야기들 들어볼 예정이다.

'신한 솔' 회원이면 누구나 시청 가능하며, 라이브 방송 중 이벤트에 참여하는 야구팬들을 대상으로 ▲팬미팅 참여 선수 친필 싸인볼(30명) ▲커피쿠폰(300명) ▲백화점상품권(10명) 등의 다양한 경품도 제공한다.

자세한 정보는 '신한 솔'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현대차 '월드컵 주역' 6명에 포상금 2억4천만원 전달

전북 현대 축구 국가대표에 1인당 4000만원씩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2020년 전북 현대 모터스 선수들과 함께 우승 트로피를 들고 세레머니를 하고 있다.

현대자동차는 카타르 월드컵에 출전한 전북 현대 모터스 소속 축구 국가대표 선수 6명에게 각각 4000만원씩 총 2억4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21일 밝혔다.

월드컵 본선에 참가한 국가대표 26명 중 전북 현대 소속 선수는 김진

수·김민환·백승호·송범근·조규성·송민규로 단일 구단 중 가장 많은 선수가 선발됐다.

이 외에도 유럽, 아시아 등 해외에서 활약하는 권경원·손준호·이재성·김민재 선수까지 포함하면 총 10명의 국가대표가 전북 현대 출신

모두 팀의 중심을 지키는 선수들이다. 이들이 자리를 비운 보름여 동안 공백을 어떻게 메우느냐에 따라 시즌 막판 순위가 요동칠 수 있다.

각 팀들은 이를 대비해 비시즌부터 준비를 해나갈 예정이다.

염경엽 LG 감독도 취임식에서부터 "아시안게임은 우리에게 큰 위기가 될 수 있는 시기"라고 짚으며 "우리 선수들이 빠져나갔을 경우를 대비해야 한다. 스프링캠프부터 그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선수를 준비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내년 시즌부터 2연전이 폐지되는 것도 시즌 운영에 영향을 줄 수 있다.

KBO리그는 10구단-144경기 체제가 된 2015년부터 시즌 막판을 2연전으로 치렀다. 그러나 이동거리 증가와 함께 선수들의 체력 부담에 대한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내년부터는 개막전을 제외한 모든 경기를 3연전으로 편성했다. 구단간 홈-원정 경기 편성도 기존 홈, 원정 각각 8경기씩에서 홈 9경기-원정 7경기 또는 홈 7경기-원정 9경기로 변경됐다.

/뉴시스

전남저작권서비스센터

전남저작권서비스센터는 도내 중소기업의 권리보호를 위한 저작권 서비스부터 안정적인 사업운영을 위한 사업화 지원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저작권 등록

저작권 등록 비용 지원

저작권 상담

저작권 전반에 대한 실무상담 지원

저작권 육성지원

시제품 제작, 홍보마케팅 등 사업화 지원

SW관리체계컨설팅

SW사용 실태진단 및 개선방향 컨설팅 지원

산업현장컨설팅

계약서 검토 및 법률자문 서비스 지원

QR코드로 신청 바로가기!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저작권위원회

전라남도

JCIA 제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문의 : 061-280-7493 / pjy@jcia.or.kr